

의미론적 초점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위혜경*†

단국대학교

Hae-Kyung Wee. 2010. A Critical Review of Semantic Theories of Focus and an Alternative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14.1, 197–227. This study reviews (i) the (dis)advantages of two major semantic theories of focus, i.e., the Alternative Semantics (AS) and the Structured Meaning Theory (SM), and (ii) the hybrid analysis consisting of these two theories proposed by Krifka (2006). After pointing out a problem of this hibrid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show the third alternative, i.e., the theory of *identificational predication* for focus can solve this problem. (Dankook University)

Key words: focus, Alternative Semantics, Structured Meaning Theory, identification, predication, focus movement, island constraint, in-situ focus, unselectivity

1. 서론

초점에 대한 여러 의미론적 분석 이론들은 문장 내적 구조에 대한 중시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Rooth(1985, 1992) 등의 방법을 따르는 대체 집합에 의거한 대체 의미론 (alternative semantics) 적 분석 방법과 Krifka (1991), von Stechow (1991) 등으로 대표 될 수 있는 문장 내부의 의미 구조적인 접근 방식인 구조화 의미 이론 (structured meaning theory)이다. 초점을 가진 문장이 발생했을 경우, 대체의미론에 의하면 초점 운용자는 초점이 구현되는 특정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초점 받은 구문에 의해 제자리 (in-situ)에서 발생되는 대체 집합의 존재에 의존하는 초점 분석을 제시한다. 반면에 구조화 의미 이론에 의하면 문장내의 초점의 위치는 초점 운용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속이 되고 문장내부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only와 같은 초점 민감자와의 연계 해석을 위해서는 LF 이동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Stechow(1991), Krifka (1998) 등은 대체 의미론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점의 LF 이동을 수반하는 구조화 의미 이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초점이 이동한다면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번지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자세한 논평과 지적으로 논문의 완성도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를 표한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초점인 John 이 only 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명사구인 섬 구조 밖으로의 이동을 해야 한다.

- (1) *Dr. Svenson only rejected the proposal that JOHN submitted.*

이러한 이동은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동 분석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Rooth (1998) 등은 초점 이론은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대체집합만을 생성하는 방식인 대체 의미론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Krifka(2006)는 이에 대하여 Drubig(1994)를 따라 이때의 이동은 John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명사구 전체가 초점구 (focus phrase)로서 이동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초점의 이동 분석을 지지한다.

- (2) a. *John only introduced [the man that Jill_F admires]_{FP} to Sue*
 b. *John only [the man that Jill_F admires]₁ [introduced t₁ to Sue]]*

그리고 Krifka(2006)는 이러한 초점구의 이동을 주장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초점구 이동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논의한다.

- (3) a.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_F to Sue]_{FP}*
 b.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 to Sue_F]_{FP}*

위의 두 경우는 초점의 위치에 따라 진리 조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a)는 Sue에게 누군가를 소개한 사람 중에서 Bill을 소개한 사람만을 John 이 좋아한다는 해석이 되고, (3b)는 Bill을 누군가에게 소개한 사람 중에서 Sue를 소개한 사람만을 John 이 좋아한다는 해석이 된다. 이에 따라서 Sue에게 누군가를 소개한 남자의 집합과 Bill을 누군가에게 소개한 남자의 집합이라는 서로 다른 대체집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리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¹ 이에 따라 Krifka는 초점구의 이동을 도입하는 구조화 의미 이론의 방법과 대체 집합을 생성시키는 대체 의미론의 혼합 방법론을 제시하며 두 경우의 진리 조건적 차이를 설명해 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합 방법론에서 Krifka는 대체 의미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합 방법론도 이전에 지적되었던 대체 의미론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예를 들어, 다음의 다중 초점의 경우에 대체 의미론의 방법에 의하면 Bill과 Sue 가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초점으로서 대체 집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때 생겨나는 대체 집합이 올바른 진리조건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것이다.

- (4) A: *Does Anne like every man who introduce a gentleman to his partner at table?*

¹ 자세한 논의는 3.5 참조.

B: *No, Anne only likes the man who introduced Bill_F to Sue_F.*

3.6 절에서 자세히 다를 내용을 여기서 간략히 언급해 보겠다. 예를 들어, Bill과 Sue, 그리고 Fred와 Mary가 파트너인데, 소개하는 남자인 Allen은 Bill을 Sue에게 소개하고, John은 Bill을 파트너가 아닌 Mary에게 소개하고, Greg는 Fred를 파트너인 Mary에게 소개했을 경우, 만약 Anne이 John과 Allen을 모두 좋아하고 Greg를 싫어한다면 B 문장은 참인 문장이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아닌 Bill-Mary의 소개를 행한 John은 좋아하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고 다른 파트너쌍인 Fred-Mary를 소개한 Greg는 고려 대상으로서 Anne이 싫어하고 Bill-Sue의 소개를 행한 Allen만 좋아하기 때문에 B의 문장은 참이 된다. 그러나 대체의미론에 의하면 Bill과 Sue 각각의 초점은 별개의 대체집합을 생성하여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 John까지 대체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정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초점에 대한 두 개의 대표적 이론인 대체 의미론과 구조화 의미 이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그리고 Krifka (2006)가 제시한 각 이론이 가지는 장점을 이용한 혼합 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시 이 혼합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체확인의 서술로서의 초점이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초점 이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비판적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점이라는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모색하여, 기존 이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그 들이다.

2 절에서는 대체의미론 방법론의 이론적 특질을 검토해 보겠다. 3 절에서는 구조화 의미 이론과 대체 의미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두 이론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4 절에서는 두 이론에 대한 제 삼의 대안으로서 정체확인 서술로서의 초점 이론을 소개하고 문제 되는 예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간략히 제시한다.

2. 대체 의미론 (Alternative Semantics)

2.1 대체의미론의 간접성

대체의미론에 의하면 초점이 문장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문장의 초점의 위치는 그 문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문맥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제로서 존재한다. Rooth가 제안한 초점을 위한 대체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에 의하면 문장은 두 개의 모형 의미론적 해석을 받게 된다. 하나는 일반 의미치(ordinary semantic value)이고 다른 하나는 초점 의미치(focus semantic value)로서, 이는 각각 $\parallel\parallel^0$, $\parallel\parallel^F$ 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5)에서 초점인 Bill의 초점 의미치는 Bill과 대체될 수 있는 다른 개체들의 집합으로 (5b)와 같은 집합이다.

- (5) a. John introduced Bill_F to Sue.
 b. $\|Bill\|^F = \{Bill, John, Mary, \dots\}$

더 큰 통사구의 대체집합은 다음과 같이 합성적으로 (compositionally) 도출해 낼 수 있다.

- (6) If $\|\alpha \beta\| = f(\|\alpha\|, \|\beta\|)$,
 then $\|\alpha \beta\|^F = \{f(X, Y) | X \in \|\alpha\|^F, Y \in \|\beta\|^F\}$

예컨대, 동사구는 동사와 목적어 명사가 함수 적용되어 얻어지는 표현으로서 동사구의 초점의미치는 동사와 명사구의 각각의 대체집합의 원소들이 함수 적용되어 얻어지는 대체집합이 된다. (5)에서 초점인 Bill의 대체집합들이 각각의 표현들과 결합될 때마다 하나의 원소를 만들어서 동사구들의 집합인 {introduced John to Sue, introduced Mary to Sue, ...} 와 같은 초점의미치가 얻어진다. 따라서 (5)의 동사구는 다음과 같이 (7a)의 일반 의미치와 (7b)의 초점 의미치의 2차원의 의미해석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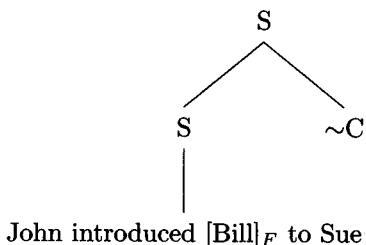
- (7) a. $\|_{VP} \text{introduced Bill}_F \text{ to Sue}\|^0$
 $= \lambda x[\text{INTROD}(SUE)(BILL)(x)]$
 b. $\|_{VP} \text{introduced Bill}_F \text{ to Sue}\|^F$
 $= \{\lambda x[\text{INTROD}(SUE)(y)(x)] | y \in \|BILL\|^F\}$

또한, 문장의 초점 의미치는 문장 내에 발생하는 각 초점구에 해당하는 의미적 유형에 대하여 담화 영역에 있는 같은 의미적 유형을 갖는 원소들로 대체시켜서 얻어진 모든 명제들의 집합이다. (5) 문장 전체의 초점 의미치는 (8)과 같다.

- (8) $\|(1a)\|^F = \{John \text{ introduced } y \text{ to Sue} | y \in \|BILL\|^F\}$
 $= \{\|John \text{ introduced John to Sue}\|^0, \|John \text{ introduced Bill to Sue}\|^0, \|John \text{ introduced Sue to Sue}\|^0, \|John \text{ introduced Mary to Sue}\|^0\}$

이렇게 발생한 초점 의미치인 대체집합은 문맥에 맞는 부분집합으로 한정되어 문장의 의미에 공헌을 한다. Rooth(1992)에 의하면 이 부분 집합은 통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라는 초점 운용소가 문장 S를 취해 도입되는 C라는 변항을 의미한다.

(9)



C는 S의 초점 의미치중 문맥에 관련된 부분집합으로서, 이 부분집합은 i) 문장 S와 ii) 초점의미치인 대체집합의 원소 중 S가 아닌 문장이 한 개 이상 더 포함되어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5)의 경우 C는 초점 의미치 전체인 (8)에서 문맥에 관련되어 제한된 부분집합이 된다. 이 집합 C가 문장의 의미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체집합인 C의 첫 번째 영향력은 주어진 문장이 초점 운용소가 전제의 의미로 생성한 대체 집합 C 중의 한 원소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다. 즉, C라는 문장들의 집합이 있는데, 주어진 문장은 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린다. 여러 가능한 문장 중, 실제 발생한 문장이 참이라는 의미이다. 예컨데, (5) 와 같은 초점을 포함한 문장은 (8)이라는 대체집합 중의 한 원소로서 참인 문장이라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이때의 대체집합들은 문맥에서 발생 가능한 문장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8)과 같은 명제의 집합들이 발생한 문맥에서 (5a)의 각 발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명제들이 발생하는 문맥이란 (10)과 같은 의문문이다. Hamblin (1973)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Wh-의문문의 의미를 (8)과 같은 가능한 대답으로서의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10) *Who did John introduce to Sue?*

의문문의 의미치와 대답의 초점의미치가 같게 되기 때문에, (10)의 의문문은 (5a)와 같은 초점 문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정 문맥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체 의미론에 따르면 초점은 초점 구문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문맥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Rooth는 자신의 이론을 영역 선택 (domain selection) 이론이라고 일컫는다. 즉, C는 문장이 발생하는 문맥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초점은 문장의 내부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맥과의 적정성만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체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으로서 초점의 문장 내적 기능은 다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통사적, 의미적 도출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의미 산출을 위해서는 초점이 없는 상태의 S로 되돌려 놓는 기능을 한다. 즉, C라는 대체 집합의 존재를 전제 (presupposition) 정보로 도입해서 적정 문맥을 알려주고는 초점의 문장 내부적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질에 반하는 듯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초점이 문장 내부에서 only와 같이 어떤 다른 운용소 (operator) 와 연계 (associate)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초점이 문장 의미에 미치는 영향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11)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11) *John only introduced Bill_F to Sue.*

초점 운용소 ~는 문장을 취하고 C를 발생시키게 되고, 다시 only는 여기서 발생한 C와 문장을 취하는 운용소가 된다. Krifka (2006)을 따라 α 의 대체집합을 ALT(α)라고 표기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12)와 같다.

- (12) [only C [\sim C [John introduced Bill_F to Sue]]
 $= \text{INTROD}(\text{SUE})(\text{BILL})(\text{JOHN}) \wedge$
 $\forall p \in \{\text{INTROD}(\text{SUE})(y)(\text{John}) \mid y \in \text{ALT}(\text{BILL})\} [p=1]$
 $\rightarrow p = \text{INTROD}(\text{SUE})(\text{BILL})(\text{JOHN})]$]

즉, 문장에서 only를 제외한 문장이 참이고, Bill의 대체집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명제의 집합 중에서 참인 문장 p가 있다면 그 p는 항상 주어진 문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ohn이 Sue에게 Bill 아닌 다른 사람 Fred도 소개해서, John introduced Fred to Sue라는 문장도 참이라면 전체 문장 (12)는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때 초점은 (5)의 문장에서 발생한 자유 초점과 달리 문장의 진리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초점의 영향은 적정 문맥을 선별하는 역할 뿐 아니라 문장의 진리 조건적 의미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점의 진리 조건적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점 자체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초점에 의해서 발생한 대체집합이 only와 연계되어 파생된 결과이다. only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문장 내부의 한 부분인 초점 Bill이 아니고 Bill의 대체 집합도 아니다. 더 넓은 영역인 문장의 대체집합 C이다.² 즉, 초점이 only와 관련하여 문장의미에까지 미치게 되는 영향은 더 큰 통사 구에서 발생하는 대체집합 C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초점인 Bill과 직접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초점인 Bill이 하는 일은 C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끝이다. 나중에 이것이 only에 의해서 이용되는 부분은 초점 Bill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점은 대체집합을 발생시키고 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문장내부에서 only와 같은 초점 민감 운용소 (focus sensitive operator)에 의해 이용되어 진리조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점 자체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으로 살펴본 Rooth의 대체의미론에 의한 초점 분석에 의하면 초점이 미치는 영향을 초점이 구현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문장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성이 다. 이 간접성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특질이 있다. 하나는 비선별성 (unselectivity)이고 또 하나는 닫힘성 (closure)의 특징인데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2.2 대체의미론의 비선별성과 닫힘성

비선별성은 초점 운용소 (focus operator)인 ~의 영향권 (scope) 안에 있는 모든 F 자

² 일반적으로 only를 동사구와 연결된 부사로서 VP를 논항으로 취해 VP의 대체집합과 연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문장 부사로 처리했다.

동사구 수식어 only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 $\|[\text{only } [VP \alpha]]\| = \lambda x [\|\alpha\|(x) \wedge \forall Y \in \|\alpha\|^F [Y(x) \rightarrow Y = \|\alpha\|]]$
 이것이 주어와 결합되면 다음과 같은 문장 해석을 얻게 된다.

ii) $\|[\text{John } [VP \text{only } [VP \text{ introduced Bill}_F \text{ to Sue}]]]\| = \text{INTROD}(\text{SUE})(\text{BILL})(\text{JOHN}) \wedge$
 $\forall Y \in \{\text{INTROD}(\text{SUE})(y) \mid y \in \text{ALT}(\text{BILL})\} [Y(\text{JOHN}) \rightarrow Y = \text{INTROD}(\text{SUE})(\text{BILL})]$

즉, 이 논리식의 의미는 John이 Sue에게 Bill을 소개했고, Sue에게 Bill과 대체 가능한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의미의 모든 동사구에 대한 대체집합 중에서 John이 그 동사구의 의미를 만족한다면 그 동사구는 Sue에게 Bill을 소개한다는 동사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질을 가진 표현들은 이 운용소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결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Bill과 Sue에 초점 자질이 있는 (13)과 같은 경우인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F 자질이 그 영향권 안에 몇 개가 발생하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에 의해 결속되어 해석을 받게 된다.

(13) *John introduced BILL to SUE.*

(14) $[\sim C[\dots F_1 \dots F_2 \dots F_n]]$

F_1 부터 F_n 까지의 모든 F 자질들은 모두 그 영향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성분통어하는 초점 운용소 ~에 의해 결속을 받게 된다. 이 각각의 F 자질들은 각자 자신과 같은 의미 유형 (semantic type)으로 이루어진 대체 집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체 구문의 대체 집합이 형성된다. 그 중의 하나가 그 문장의 단언 (assertion) 이 되고 형성된 나머지 대체 집합의 존재는 전제 (presupposition)로 취급된다. 따라서 ~운용소는 어떤 특정한 초점만을 골라 목표로 삼지 않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모든 F를 비선택적으로 결속한다. 또한, ~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F 자질을 결속하기 때문에, 어떤 F도 ~의 상위 통사구조까지 살아남아 의미적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닫힘성 (closure)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초점에 의한 의미적 영향은 전제의미인 대체집합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운용소의 처리를 거치고 난 후에는 이 문장의 의미는 본래의 의미인 일반 의미치로 되돌려 진다는 점에서 초점 의미는 중화 (neutralization) 가 된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문장의 초점은 대체 집합을 형성해주고 끝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문장내적으로 초점부분과 비초점 부분의 구분에 따르는 문장 내적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체 집합을 형성한 후 그 대체 집합은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화되며, 그 이후에는 대체 집합은 전제정보이기 때문에 조응사로서 선행 문맥에서 적절한 선행사를 찾아보는 역할을 하는 문장 외적인 기능만이 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 집합적 의미론에서의 초점이란 결국 담화 구조를 반영하거나 적절한 담화 영역을 선택해 주는 기제로서의 기능만을 갖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체의미론적 분석법은 초점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on Fintel (1994), Buering (1994, 1999), Kratzer (1991) 등은 모두 이 대체의미론적 방법으로 초점을 분석하고 Roberts (1996) 와 Buering (2003)의 초점과 주제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방법도 Rooth의 이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점의 문장 내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는 초점이 문장의 내부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초점 이론인 구조화 의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 구조화 의미 이론 (Structured Meaning Theory)

3.1 구조화 의미 이론의 선별성과 LF 이동

문장 내부의 의미를 중시하는 초점이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위 구조화 의미 이론 (structured meaning theory)이다. 구조화 의미 이론은 von Stechow (1981), Cresswell & von Stechow (1982) 등에 의해 제안되었고, Krifka (1991) 등이 계승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초점을 받는 문장의 의미를 i) 초점 부분을 λ -추상화 시켜서 얻은 자질, 즉, 배경 (background)과 (ii) 초점 구문의 의미, 즉, 전경 (foreground)으로 이루어진 순서화된 나열 (ordered vector)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조화된 의미 (structured meaning)라고 부른다. 다음의 (15)가 (1a)와 (13)의 구조화된 의미이다.

- (15) a. $<[\lambda x[\text{introduce}(j,x,s)], \text{Bill}>$
- b. $<[\lambda <x,y>[\text{introduce}(j,x,y)], <\text{Bill}, \text{Sue}>>$

구조화 의미 이론도 대체의미론에서와 같이 wh-의문문과 그 대답간의 적정성 (felicity)을 설명할 수 있다. wh-의문문의 의미를 wh-구를 λ -추상화시켜서 얻어지는 자질로 보는 연구들의 입장 (Hausser 1976, Tichy 1978, Scha 1983)을 빙아들이면, (15a)의 배경의미와 (5a)의 초점문을 대답으로 갖는 wh-의문문의 의미가 각각 같아지기 때문에, wh-의문문과 초점 문장으로 된 대답이 적정하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구조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어떤 부분이 초점이고 어떤 부분이 배경인가를 구분하기 때문에 초점으로 인해 문장이 내부적으로 구조화된다. 또한, 초점 운용자가 문장 내부의 초점 표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대체 의미론과는 달리 모든 초점이 무차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초점이 필요한 운용자와 선별적으로 연계 해석된다.

자세한 구조화 의미론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체의미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초점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인 대체 의미론 (Alterntative Semantics)과 구조화 의미 이론 (Structured Meaning Theory)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두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으로 편의상 두 이론을 각각 AS, SM으로 줄여 부르기로 하겠다.

3.2 대체 의미론의 장점

이 두 가지 대표적 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듯 AS 이론의 경우 그 비선별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문장 내에서 초점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몇 개가 있는지 등의 문장내부에서의 초점의 정체성은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11) *John only introduced Bill_F to Sue.*

(11) 에서와 같이 *only*와 같은 초점 민감성 운용소 (focus sensitive operator) 가 영향권 안에 있는 초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초점구의 위치에 *only*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일반 의미치와 초점의미치를 취해서 *only*의 의미 적용 결과를 도출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 방식에서는 초점 표현의 의미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초점일 때 더 큰 표현에 미치는 결과만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only*는 그 대체 집합이 문장 도출 과정 중 어떤 표현에서 발생한 초점인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SM 이론에서는 문장 내부에서 초점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표현에 대해 *only*가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다. 따라서 *only*와 초점구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계를 위해서는 초점구가 *only*에 접근할 수 있는 LF 이동과 같은 초점구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 두 이론을 비교하면, 여기서 AS의 두 가지 우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초점 민감 운용자를 위해 초점구의 존재를 알아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SM 이론과는 달리, 해당 영역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에 초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 없이, 발생하는 모든 초점에 대해 대체 집합만을 제공받아 연산처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대체 의미론이 초점에 대한 더 경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을 AS가 가지는 한 가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동을 필요로 하는 SM과 달리 이동이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생성된 대체집합만으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에서 통상 발생하는 이동 제약이 초점의 경우에는 준수되지 않는다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16) *Dr. Svenson only rejected the proposal that JOHN submitted.*

서론의 (1)에서 보았듯이, 문장 (16)에서 *only*는 섬 (island) 인 복합명사구 안에 발생하는 John과 연계 해석 되는데, SM 이론에 의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이 섬 밖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초점의 이동은 이동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이는 초점구의 이동 가설이 옳지 않다는 반증으로 거론되곤 했다 (cf. Rooth 1995 등).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대체 의미론이 구조화 의미 이론보다 더 적절하고 경제적인 이론이라는 견해가 가능하다 (cf. Rooth 1996).

그러나 AS 접근의 문제점 또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

3.3 구조화 의미 이론의 장점³

첫째, Rooth (1985) 자신과 Block (1993)에서도 논의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해서 대체 의미론은 올바른 진리치를 도출하지 못한다.

³ 이 소절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제기되 오던 문제들로서 본고에서는 Krifka (2006)에서 정리된 내용을 주로 다시 인용했다.

(17) *Nine only is the square of THREE.*

수학적 진리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영역의 집합을 모든 정수라고 했을 때, three의 대체집합은 {... -5,-4,-3,-2, -1, 0, 1, 2, 3, 4...} 이지만 the square of THREE의 대체 집합은 {0,1,2,3,4...} 이고 the square of three와 the square of minus three는 항상 같은 외연과 내포를 가져서, nine의 의미와 같다. 수학적 진리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외연(extension) 모형뿐만 아니라 내포(intention) 모형에서도 대체 의미론적으로는 참인 문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9는 -3의 제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어야 한다. 이는 only가 초점인 three의 대체집합을 직접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DP의 대체집합을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Krifka (1992)에서 지적된 (18)과 같은 다초점(multiple focus)의 경우에 발생한다.

(18) *John only introduced Bill_F to Sue.*

John also₂ only₁ [introduced Bill_{F1} to Mary_{F2}]

위와 같이 also와 only라는 두 개의 초점 운용소가 각각 다른 초점구를 선택 해석해야 하는 경우, 즉 only는 Bill을 also는 Mary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체 의미론 하에서는 only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Bill과 Mary를 둘 다 비선별적으로 선택해 버리기 때문에 also에게는 연계 해석될 아무 초점구도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세 번째 문제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19) A: *What a copycat you are!*

You went to Block Island because I did, and you went to Tanglewood because I did.

B: *No, I only went to Tanglewood_F because you did.*

일반적으로 (19B) 문장의 생략구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20) *I only [went to Tanglewood_F because you went to Tanglewood_F].*

이 문장에 대한 대체 집합은 초점구인 각 Tanglewood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대체집합이 생성되어 다음과 같은 대체집합이 생기게 될 것이다.

(21) (a) *I went to Block Island because you went to Block Island*

(b) *I went to Block Island because you went to Tanglewood*

(c) *I went to Tanglewood because you went to Block Island*

(d) I went to Tanglewood because you went to Tanglewood

대체 의미론 하에서는 이 대체 문장 중에서 (d) 문장만이 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곳을 따라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a) 와 (d) 문장만이 대체 집합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체 의미론에서는 올바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반면에 구조화 의미론의 경우에는 초점을 선별해서 결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초점구를 하나의 변향으로 처리하여 항상 같은 원소로 대체되도록 하면 (a) 와 (d) 만을 대체원소로 갖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슷한 예로서 Stechow (1990) 에서 지적된 다중 초점의 경우로서, 한 문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초점들끼리의 관계를 명시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파티에서 식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정된 파트너를 소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Bill, Sue, Fred, Mary 이렇게 네 명의 참석자가 있고, Bill과 Sue, 그리고 Fred 와 Mary 가 지정된 파트너라고 했을 때, 주최자인 John 이 Bill 을 Sue 와 Mary 에게 소개한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그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B 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22) A: *Did John introduce every gentleman to his partner at table?*

B: *No, John only introduced Bill_F to Sue_F.*

(22') a. John introduced Bill to Sue.

b. John introduced Bill to Mary.

c. John introduced Fred to Sue.

d. John introduced Fred to Mary.

(22B) 의 문장은 AS 에 의하면 두 개의 초점구가 별도의 대체집합을 형성하게 되어 (22') 과 같은 대체집합이 생성된다. 주어진 문맥에서 Bill 을 Sue 에게뿐 아니라 Mary 에게도 소개했기 때문에 (22'a) 와 (22'b) 의 두 문장이 참이기 때문에 (22B) 문장은 거짓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실은 두 초점구의 관계가 남자와 그 지정된 파트너라는 관계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대체집합 안에 Bill 과 Mary 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지정된 파트너중에서 소개한 커플은 Bill 과 Sue 의 소개만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이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진 문맥에서 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AS 는 이 문장의 진리값을 올바로 도출하지 못한다. 반면, SM 이론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쌍들이 하나의 변향이 되어 only 라는 운용소에 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연산이 가능하다. 대체 의미론에서는 다수의 초점구가 항상 별도의 변향으로 비선별적으로 처리되지만, SM 이론에서는 다수의 초점 중 각각의 초점을 선별하기도 하고, 다수의 초점의 관계성을 선별하여 여러 개를 동시에 연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AS의 초점이론 분석의 단점이자 SM 이론의 장점들로서 이들은 AS의 간접성과 비선별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AS의 단점과 더불어, SM 이론의 이동 가설에 유리한 또 다른 논거도 제시되고 있다. Drubig(1994)에 의하면 초점의 LF 이동에 대한 반증으로서 거론되는 (16)과 같은 예문에서 이동 제약 위배 현상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 (23) a. *John only introduced [the man that Jill_F admires]_{FP} to Sue*
- b. *John only [the man that Jill_F admires]₁ [introduced t₁ to Sue]₂*
- (24) a.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_F to Sue]_{FP}*
- b. *John only [[the man that introduced Bill to Sue]_F_P 1/liked t₁]₂*

섬 제약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23a)와 (24a) 문장들이 사실은 (b)의 구조와 같이 초점구 전체가 pied pipe되어 LF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Drubig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초점구인 Jill과 Bill은 섬을 빠져나오지 않아 섬 제약을 위배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초점은 섬 제약을 준수하는 LF 이동을 수반한다는 입장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Krifka (2006)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3.4 초점구 (focus phrase)의 이동

Krifka (2006)는 (23b)와 (24b)에서처럼 초점 표현뿐 아니라 초점구 전체가 LF 이동을 해서 초점 민감 운용자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 명시적 대조 구문, 2) 섬제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중 초점, 그리고 3) 의문문에 대한 짧은 대답 (fragment, short answer 혹은 term answer라고 불리는 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명시적 대조구문은 다음과 같은 예를 가리킨다.

- (25) a. *Mary didn't invite John_F to the party, but she invited Bill_F.*
- b. *Mary didn't invite John_F to the party, but Bill_F.*

(25a)에서 John과 Bill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25b)를 통해 대조되는 초점표현만 남기고 배경 부분은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Drubig (1994)에서 관찰된 대로 아래 (26a-e)에서 보이듯이 통사적 섬 구조에서 초점 표현이 발생할 때에는 초점 표현 뿐 아니라 섬 구문 전체를 남기고 나머지 배경 부분만이 생략될 수 있다.

- (26) *Mary didn't invite [the man in a black_F suit]_{FP} to the party,*
- a. *but she invited the man in a purple_F suit.*

- b. *but the man in a purple_F suit.*
- c. **but in a purple_F suit.*
- d. **but a purple_F suit.*
- e. **but purple_F.*

(26c-e)의 비문성에서 볼 수 있듯이, 섬 내부에서 발생하는 초점은 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조 구문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섬 구조인 DP 전체가 대조 구문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즉, 이때 대조 구문은 섬구조에서 벗어나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고, 이는 다음과 같은 초점구의 LF 이동 구조를 입증하는 예가 된다.

- (27) LF: *Mary [didn't [the man in a black_F suit]_{FP} 1/invite t_1 to the party] [but [the man in a purple_F suit]_{FP}]*

즉, 초점 민감 운용자의 하나인 부정어가 초점구와 연계되기 위해 초점구가 LF 이동을 하고 but 절에서도 초점구만이 이동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이 된 구조를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로서, 섬구조 내부에 다중 초점이 발생했을 때, Drubig의 주장이 옳다면, 섬 구조 전체가 하나의 해체되지 않는 단위로서 이동을 하게 되므로, 다중 초점이 별개로 서로 다른 초점 민감 운용자와 연계되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의 섬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중 초점들은 모두 한꺼번에 하나의 운용소와 연계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자.

- (28) a. $\text{FO}_i \text{ FO}_j [\dots [\dots \text{F}_j \dots]_{\text{Island}} \dots [\dots \text{F}_i \dots]_{\text{Island}} \dots]$
 b. **FO_i FO_j [... [... F_j ... F_i ...]_{\text{Island}} ...]*
 (FO는 초점 민감 운용소 표시)

(28a)에서와 같이 다중 초점이 서로 다른 섬 구조 안에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소와 결속이 가능하지만, 같은 섬 구조 안에 발생한 여러 개의 초점은 서로 다른 운용소와 결속되는 (28b)와 같은 구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중 초점구는 해석이 쉽지 않아서 이 두 구문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직관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Krifka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문의 문법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 (29) a. *He only recommended the woman that had rescued the orphan_F children from Somalia to the prime minister. Also, he only recommended [the woman that had rescued the orphan_F children from Somalia] to the president_F.*

- b. *He only recommended the woman that had rescued the orphan_F children from Somalia to the prime minister. Also, he only recommended [the woman that had rescued the orphan_F children from Eritrea_F] to the prime minister.*
- (30) a. *Of all the people in her audience, Jacqueline only introduced [the girl that presented flowers_F to John F. Kennedy. She also only introduced [the girl that presented flowers_F] to Bobby_F Kennedy.*
- b. *Of all the girls that presented something to her husband, Jacqueline only remembers the girl that presented flowers_F to John F. Kennedy. She also only remembers [the girl that presented flowers_F to Bobby_F Kennedy].*
- (31) a. *We only offered the diary entries that Marilyn_F made to John F. Kennedy. We also only offered [the diary entries that Marilyn_F made] to Bobby_F Kennedy.*
- b. *We only copied the diary entries that Marilyn_F made about John F. Kennedy. We also only copied [the diary entries that Marilyn_F made about Bobby_F Kennedy]*

각 문장의 쌍들에서 같은 섬 구조에서 다중 초점이 발생하여 각기 다른 운용자인 also 와 only 와 연계 해석되어야 하는 (b) 문장들은, 섬 구조의 안과 밖에서 각각 다른 초점이 발생하여 각각 다른 운용자와 연계 해석되는 (a)의 문장에 비해 문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Krifka의 주장이다. 즉, 하나의 섬 구조는 함께 LF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부의 초점표현이 서로 다른 운용자와 따로 연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초점구 전체의 LF 이동을 입증하는 예라는 것이다.

세 번째 증거로서는 Wh-의문문에 대해서 짧은 대답을 할 경우에도 섬제약 구조 내부에 초점이 발생할 때는 초점이 구현되는 그 표현만으로는 대답을 구성할 수 없고, 초점이 포함된 전체 섬 구조가 모두 대답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메아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32b)와 같은 짧은 대답이 가능한데 이는 (c)와 같은 LF 이동을 설정해서 설명할 수 있다.

- (32) a. *The police arrested [the thief who stole which car]?*
- b. *[The thief who stole the Volvo_F]_{FP}.*
- c. *LF: [the thief who stole the Volvo_F]₁[The police arrested t₁]*

그러나 만약 대체 의미론이었다면, 이때 명사구 전체를 초점구로 선택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초점인 the Volvo만을 남기고 이미 발화된 부분은 모두 생략하게 하는 잘못된 짧은 대답을 허용한다.

- (33) a. *The police arrested [the thief who stole which car]?*

b. The police arrested [*the thief who stole the Volvo_F*]

이상의 세 가지 경우들을 통해 섬 구조를 형성하는 확장 초점구가 운용소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초점이 LF 이동을 하면서 섬 제약을 준수면서 발생하는 pied piping의 결과로서 초점이 LF 이동을 한다는 구조화 의미론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현상들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AS적 비선별적 방식은 초점 문장의 올바른 의미 해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M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Krifka (2006)에 의하면 이 모든 문제가 SM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자.

3.5 대체 의미론과 구조화 의미 이론의 혼합 이론

Krifka(2006)에 의하면, 다음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앞으로 이동된 것은 확장 초점구 전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 안에서 초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4) a.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_F to Sue]_{FP}*
- b.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 to Sue_F]_{FP}*

위의 두 문장에서 초점의 위치가 Bill에 있을 때와 Sue에 있을 때 서로 다른 대체 집합을 도입하게 된다. (34a)의 경우에는 Sue에게 누군가를 소개한 사람들의 집합이고, (34b)에서는 누군가에게 Bill을 소개한 사람들의 집합이 도입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리값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ue에게 누군가를 소개한 사람 중에 Bill을 소개한 사람은 Greg이고 Ben을 소개한 사람은 George라고 가정하자. 또한, Bill을 누군가에게 소개한 사람 중에 Sue에게 소개한 사람은 Greg이고 Sigrid에게 소개한 사람이 Glen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John이 Greg과 Glen을 좋아하고, George는 안 좋아는 상황이라면, (34a)는 참이지만 (34b)는 거짓이 된다. 즉, 두 문장은 초점의 위치의 차이 때문에 다른 진리치를 갖게 되는 문장이 된다. 따라서, 섬 제약과는 별도로 초점구 내에서 발생하는 초점의 위치에 따른 대체 집합의 차이를 밝혀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Krifka (2006)는 구조화 의미론과 대체 의미론을 함께 이용한 혼성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즉, (34a) 문장에서 발생하는 대체 집합과 (34b) 문장에서 발생하는 그것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 (35) a. $\|[\text{the man that introduced Bill}_F \text{ to } \text{Sue}]_{FP}\|^F$
 $= \{\exists x [\text{MAN}(x) \wedge \text{INTROD}(\text{SUE})(y)(x)] \mid y \in \text{ALT}(\text{BILL})\}$
- b. $\|[\text{the man that introduced Bill to } \text{Sue}_F]_{FP}\|^F$
 $= \{\exists x [\text{MAN}(x) \wedge \text{INTROD}(y)(\text{BILL})(x)] \mid y \in \text{ALT}(\text{SUE})\}$

이 대체 집합이 SM 하에서의 only의 해석에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의미식이 얻어진다.

- (36) $\| \text{John only } [\text{the man that introd. Bill}_F \text{ to Sue}]_{FP1} [\text{liked } t_1] \|$
 $= \forall x \in \{ \text{the man that introd. Bill}_F \text{ to Sue} \}^F$
 $[\text{LIKED}(x)(\text{JOHN}) \rightarrow x = \{ \text{the man that introd. Bill}_F \text{ to Sue} \}]$
 $= \forall x \in \{ \forall y [\text{MAN}(x) \wedge \text{INTROD}(\text{SUE})(y)(x)] \mid y \in \text{ALT}(\text{BILL}) \}$
 $[\text{LIKED}(x)(\text{JOHN}) \rightarrow x = \forall y [\text{MAN}(x) \wedge \text{INTROD}(\text{SUE})(\text{BILL})(y)]]$
- (37) $\| \text{John only } [\text{the man that introd. Bill to Sue}_F]_{FP1} [\text{liked } t_1] \|$
 $= \forall x \in \{ \text{the man that introd. Bill to Sue}_F \}^F$
 $[\text{LIKED}(x)(\text{JOHN}) \rightarrow x = \{ \text{the man that introd. Bill to Sue}_F \}]$
 $= \forall x \in \{ \forall y [\text{MAN}(x) \wedge \text{INTROD}(y)(\text{BILL})(x)] \mid y \in \text{ALT}(\text{SUE}) \}$
 $[\text{LIKED}(x)(\text{JOHN}) \rightarrow x = \forall y [\text{MAN}(x) \wedge \text{INTROD}(\text{SUE})(\text{BILL})(y)]]$

두 개의 의미식에서 only 옆으로 이동된 초점구 (focus phrase)는 같은 초점구이지만 각 초점구 내부에 발생하는 초점의 위치는 서로 다르고, 그 차이점이 이 의미식에서 Sue에게 누군가를 소개한 남자의 집합과 Bill을 누군가에게 소개한 남자의 집합의 차이이다. 전자는 {Greg, George}이고, 후자는 {Greg, Glen}가 된다. 이 중에서는 John이 George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Bill을 소개한 Greg만을 좋아했다는 전자의 경우는 참이 되지만, 후자 중에서는 Greg과 Glen을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Sue를 소개한 Greg만을 좋아했다는 (b)는 거짓이 된다. 즉, 이 식에서 보이듯이 SM의 이동의 방법과 AS의 대체집합을 혼합 이용해서 서로 다른 진리치를 성공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Krifka는 이런 식으로 초점구 내부의 초점의 위치에 따른 의미해석의 차이를 두 방법론을 혼합 사용해서 포착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이상으로 초점의 의미 해석을 위해서 AS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과 SM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음을 보았고,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SM을 이용하고, 섬 구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초점의 경우에는 AS적 방법을 이용하여야만 원하는 의미해석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한다.

3.6 혼합 이론의 문제점

Krifka가 제안한 혼합 방법은 구조화 의미 이론에 대체의미론을 접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접목하는 과정에서 대체의미론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 의미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그 문제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이 고안되지 않는 한 혼성방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즉, 위에서 열거된 대체 의미론의 문제점들이 섬제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초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체 의미론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그 첫째 문제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혼합 방법이 필요한 예문을 만들기 위해 파티에서 지정된 파트너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22)의 상황을 살짝 변형해서 Bill과 Sue의 초점이 섬구조안에서 발생하는 경우

를 설정해 보자. 먼저, (22) 에서와 같이 Bill, Sue, Fred, Mary 이렇게 네 명의 참석자가 있고, Bill과 Sue, 그리고 Fred와 Mary 가 지정된 파트너라고 하자. 둘째, 소개를 담당하는 남자로서 John과 Allen과 Bill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셋째, 이 중에서 John 이 Bill을 Mary에게 소개하고, Allen 이 Bill을 Sue에게 소개하고, Greg은 Fred를 Mary에게 소개했다고 가정하자. 넷째, Anne 이 John과 Allen을 좋아하고, Greg를 싫어하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그때 다음의 질문과 답을 고려해 보자.

- (38) A: *Does Anne like every man who introduce a gentleman to his partner at table?*

B: *No, Anne only likes the man who introduced Bill_F to Sue_F.*

이 경우 질문에서 (38A)에서 every man은 Bill과 Fred를 자기 파트너에게 각각 소개한 남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Allen과 Greg 만이 대상이 된다. 즉, Bill을 파트너가 아닌 Mary에게 소개한 John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Anne 이 Greg은 안 좋아하고 Allen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38B)은 Bill을 자기 파트너인 Sue에게 소개한 Allen만을 좋아한다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이 된다. 그런데 AS에 의하면 초점을 받는 Bill과 Sue의 대체집합은 각각의 서로 다른 대체집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Anne 이 Bill을 파트너인 Sue에게 소개한 Allen뿐만 아니라 Mary에게 소개시킨 John도 좋아하기 때문에 대체의미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다음의 대체 집합중에서 b 문장도 참이기 때문에 B의 문장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 (38B') a. Anne likes the man who introduced Bill to Sue. (- Allen)
 b. Anne likes the man who introduced Bill to Mary. (-John)
 c. Anne likes the man who introduced Fred to Mary. (-Greg)

그러나 주어진 문맥에 따르면 Bill과 Sue의 초점은 각각 별개의 대체 집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Bill, Sue>, <Fred, Mary>} 이렇게 서로 지정 파트너인 쌍들을 원소로 하기 때문에 <Bill, Mary> 쌍 즉, (38B'b)의 대체 원소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Bill을 Mary에게 소개시킨 John은 every man who introduced a gentleman to his partner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red를 Mary에게 소개시킨 Greg을 Anne 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B의 대답은 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초점을 구분할 수 없는 AS의 입장에서는 Bill과 Mary가 각각 대체집합중의 한 원소가 되어 그 둘을 소개한 John도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AS 하에서의 이 예문의 잘못된 해석은 결국 Krifka에서 지적된 대체 집합의 문제점, 특히 (22)에서 논의된 똑 같은 문제점이 Krifka가 제시하는 혼합 방법론에서 이용되는 대체 의미론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을 보여준다. 따라서 AS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 단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혼합방법론에서 이용하는 것은 Krifka의 방법론의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⁴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는 별도로 이러한 혼성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입장은 언제나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단일한 방법론이 있다면 이론의 통일성과 경제성에 있어서 단일 방법론이 당연히 우선책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단일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 정체확인 서술어로서의 초점

이미 논의한대로 대체의미론에 의하면, 모든 초점구는 초점운용소에 의해 대체집합을 할당받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초점은 문장의 내부구조에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구조화 의미론은 초점으로 인한 문장 내부 구조와 내부 의미에 대한 영향을 포착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에 서의 논의를 통해 AS의 간접성과 비선별성은 올바른 초점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문장내부에서 초점구에 직접 접근하고 필요한 초점구를 선별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했다. 따라서 SM과 같은 문장 내부의 초점으로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임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SM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았고 또한 그 해결을 위한 혼성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초점의 문장 내부 구조적 영향을 중시하는 방법론은 이러한 구조화 의미론이라 불리는 접근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방법들도 존재해 왔다. Steedman (1991, 2000)이 제시하는 조합 범주 문법 (combinatorial categorial grammar)을 이용한 분석 방법, Lembrecht (1994), Peregrin (1994) 등의 기능주의 문법론자들의 해석, Scabolschi (1981), Löbner (1990), Herberger (2000) 등의 형식 의미론자들의 분석, 그리고 Chomsky

⁴ 의명의 심사자가 지적한대로 위의 (22B)의 예문과 같은 상황은 SM 이론에서 별 문제 없이 설명이 된다. Krifka (1992)에 의하면 (22B)에서 발생하는 복수초점은 다음과 같은 대체원소로 이루어진 제한된 대체집합을 발생시킨다. 즉, $\{x \cdot y \mid x \text{ and } y \text{ are partners} \wedge \text{introduce}(j, y, x)\}$. 따라서 (22b)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Only ($\lambda x \cdot y [\text{introduce}(j, y, x), b \cdot s]) = \text{introduce}(j, s, b) \wedge \forall x \cdot y [x \cdot y \in \text{ALT}(b \cdot s) \wedge \text{introduce}(j, y, x) \rightarrow x \cdot y = b \cdot s$). 여기서 $x \cdot y$ 는 $\lambda h \cdot t \Phi(a \cdot b) = \lambda t [\lambda h \Phi(a)](b)$ 와 같은 변형 둘로 이루어진 list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38B)에서와 같이 이러한 초점이 통사적 섭 구조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섭구조안에서 발생한 복수 초점들이 only에 접근하기 위해서 LF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동제약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Krifka는 섭구조안에서 발생하는 초점에 한해서는 제자리에서 대체집합만을 만들어내는 AS의 방법론을 SM 이론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본래 이론에 가미하여 혼합하여 제안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여기서 only는 Bill과 Sue의 리스트로 이루어진 초점에 직접 접근이 되지 않고 AS 방법에 의해 발생한 DP의 대체집합에만 직접 접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대체집합은 위에서 논의한대로 AS의 기본 정신인 비선별성과 단립성에 의해 자유초점으로서 각각의 초점, 즉, Bill과 Sue가 개별적으로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 둘 간의 관계를 SM에서와 같이 gentleman과 그 파트너라는 관련성으로 서로 묶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AS의 단점이 바로 따라서 3.3 절에서 검토한 (22B)의 경우 AS가 해결할 수 없고 대신 SM 이론은 해결 가능하다고 밝힌 Krifka의 주장인데, 이 단점이 (33B)에서 Krifka가 가미한 AS 방법론에 그대로 승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971, 1976), Zubizaretta (1999), Wee(2004) 등의 초점의 술어 (predication)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분석 방법 등이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Krifka(2006)가 제안한 혼합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초점의 술어로서의 기능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일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4.1 정체확인 서술어로서의 초점 분석 방법의 개요⁵

술어로서의 초점의 의미가 엿보이는 분석으로는 일찍이 Chomsky (1971, 1976)를 꼽을 수 있다. Chomsky (1976)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초점을 포함하는 문장인 (39a, b)의 경우 (40a, b)와 같은 LF에 따른 해석을 받게 된다.

- (39) a. [John [ate [the pie]_F]] *What did John eat?*
 b. [[John]_F [ate [the pie]]] *Who ate the pie?*

(40) (39a) 와 (39b)의 LF:

- a. the x, such that John ate x, is the pie.
- b. the x, such that x ate the pie, is John.⁶

위의 입장에 의하면 초점화된 구성소는 양화 상승 (QR)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과정은 (40a)의 의미 구조에서 보듯이 한정사로 묶여 양화 상승된 변수가 동일성의 서술 (equality predication)을 통해 초점화된 표현과 같은 값을 할당 받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양화 상승하는 변항 x는 F-표시되는 John이나 the pie라는 지시체 (referent)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동일성의 서술을 통해 그 대상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는 *the x*라는 한정적 변항 (definite variable)으로서 정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조응사 (anaphora)로서 존재하고 있다. 즉, 초점인 John이나 John을 제외한 나머지 초점을 (focus frame) 전체가 먼저 양화 상승되고 나중에 동일서술에 의해서 비로소 초점구의 정체는 알려지게 된다. 양화 상승된 변항은 *the*라는 한정 표현에 의해서 묶여 있으므로 그 지시체는 Russell (1905) 이후 일반적으로 한정표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최대성 / 특정성 (maximality/uniqueness)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져, Rullman(1995)이나 Kadmon(1990) 등이 제시한 대로 최대항 연산자에 의해 주어진 자질을 만족시키는 최대항연산자에 의해 표현된다. 이 최대항 연산자 *maximality*는 초점을에 해당하는 자질을 만족시키는 최대항을 네어 주고 이

⁵ 아래의 내용은 다수의 이전 연구인 줄고(1999, 2003, 2007 등)에서 이미 제안된 같은 내용으로서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다시 정리하고 있다.

⁶ Zubizzareta(1999)도 같은 입장으로 초점 구문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The variable bound by the definite quantifier *the* (, which implies the maximal/unique assignment as a definite description (저자 주,),) is assigned a value by the primitive predicate of equality (i.e. the specification or equative *be*).” (Zubizareta 1998)

존재는 이전 문맥에서 주어졌을 의문문에 의해 선행사가 발생하여 조응적 한정 표현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의미는 초점 구문의 전체 나열 (exhaustive listing)의 의미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맥을 같이 하며, 줄고(1999, 2003, 2007)에서는 초점 문장의 의미적 주-술 (subject-predicate) 구조는 표충적으로 나타나는 통사적 주-술 구조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주-술 구조의 의미와 통사의 이원론에 대한 견해는 오래 전 Frege(1884) 때부터 존재해 왔고, Peregrin (1996)에서도 같은 입장이 발견된다. 따라서 Wee는 초점은 문장을 초점틀로 이루어진 전제와 초점구에 의해 표현되는 단언으로 나눈다는 분석을 제시하는데 이는 Chomsky에서 제시된 LF의 해석과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39a)와 같은 초점 문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제, 단언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39a') 전제: There is some x such that John ate x

단언: The x = the pie

다시 말해, 두 개의 지시체, 즉, (i) 문장의 초점틀에 의해 표현되는 자질을 만족시키는 한정적 지시체와 (ii) 초점의 지시체 사이의 동일성의 서술로 이루어져서 (i)은 초점 문장의 의미적 주어로, (ii)는 의미적 술어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보듯이 (39a')에서 한정적 변항 x 로 표시된 지시체, *the x such that john ate x* ,는 의미적 주어로, $x=\text{the pie}$ 부분은 의미적 술어로 분석한다.

(39a)의 LF 형태: the x , such that x ate the pie, is John

Semantic subject

semantic predicate

즉, 초점의 의미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41) 초점의 의미적 기능:

- 문장을 의미적 주어인 전제(presupposition)와 의미적 술어인 단언(assertion)으로 구분
- 의미적 주어인 전제된 한정적 변항과 초점화된 지시체간의 동일성의 서술

초점의 기능을 의미적 서술어로 보는 견해는 오래 전 Paul (1884)에서부터 존재해 왔고, 또 많은 현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직관이다. 최근에는 E. Kiss (2006) 가 형가리어에서 VP 위에 PredP라는 서술구의 통사적 구조를 설정하고 동사 앞에 발생하는 초점의 위치가 바로 Spec, PredP라고 주장함으로써 초점이 술어라는 통사 구조적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Kenesei(2006)는 Kenesei(1984, 1986)에 이어서 초점은

정체확인 (identification)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E Kiss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초점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의미적 기능이 있다고 제안하지만, Kenesei는 초점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초점의 의미는 정체확인이라는 단일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즉, 많은 연구에서 초점을 술어로서 또한 정체확인의 기능으로서 인식하고 분석하고 있음은 초점의 정체확인 서술 (idenficational predication)로서의 분석의 타당성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어로서의 초점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위에서 논의한 초점 문장에 대한 단일한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2 초점과 초점구

이 소절에서는 우선 초점의 통사적 영역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는 어떤 한 표현에 구현된 피치 액센트 (pitch accent)가 어떤 초점 구성소로 확대되는가의 음운-통사적 상호작용의 문제이다. 실제로 물리적인 강세를 받는 단어와 그 단어를 포함하는 상위의 구성소로 초점이 확대 연결되는 현상을 초점 투사라고 흔히 부른다. 초점 구성소를 결정짓는 초점 투사 현상은 앞에서 다루었던 초점의 이동제약 위반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앞의 (16)과 같은 문장은 John 이 H의 피치 액센트를 받는 운율형태인데, 이미 언급한대로 초점이 이동제약을 준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로 거론되어 초점의 이동 가설을 부인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16')에서와 같이 only를 생략한 자유 초점 구문으로 바꾸어 논의를 하겠다.

- (16') *Dr. Svenson rejected the proposal JOHN submitted*
 H^*

이미 위에서 논의된 Krifka의 초점구 (focus phrase)에 대한 주장에서 보았듯이 이 문장에서 초점은 복합명사구 전체와 연결 해석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응답의 문맥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pied piping의 경우로서 이동제약을 부인하는 근거로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 (42) A: *Which proposal did Dr. Svenson reject?*

- B: *Dr. Svenson rejected [DP the proposal [JOHN]_F submitted] FP*
 H^*

(B)의 문장은 Svenson 박사가 퇴짜 놓은 것이 어떤 계획안인지를 답해 주는 문장으로서 목적어 DP 전체가 그 wh-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구성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 의미적으로는 John에 구현된 피치 액센트는 전체 DP 까지 투사되어 FP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전체 목적어 명사구가 초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구조와 해석에 대해서는 Kadmon (2001)도 같은 의견을 보인다.⁷ 여기에서 문제는 일반적인

⁷ 다음과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Svenson 박사가 거절한 계획안의 제출자가 Bill이 아니라 John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정보는 John에 국한되어, John에 구현된 피치 액센트도 더 이상 넓게 투사되지

초점 투사 규칙에 의하면 DP 전체에 John의 피치액센트가 투사될 수 없는 통사 구조라는 점이다. Selkirk(1996)의 다음과 같은 초점 투사 규칙에 의하면 구성소의 핵이나 내항에 발생한 강세만이 전체 구성소로 초점이 투사될 수 있다.

(43) F-assignment Rules (Selkirk 1996)

A. Basic Rule

An accented word is F-marked.

B. F projection

- (a) F-marking of the head of a phrase licenses the F-marking of the phrase.
 - (b) F-marking of an *internal argument* of a head licenses the F-marking of the head.

위의 규칙에 따르면 (43b)에 의해 [Head, Argument]에서 논항의 강세가 핵에 F-표시를 허가하고 (43a)에 의해 전체 구의 F-표시를 허락한다. 즉, $[H_F A_F]_F$ 의 구조에서 A에서 시작된 강세가 전체 구의 F-표시로 투사 확대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예를 들어 다음의 문맥에서 발생한 대답 문장에서 Mary에 부여된 강세가 전체 VP로 투사 확대되도록 한다.

(44) *What did John do? John [praised MARY]_F.*

$$H^*$$

그러나 (42b)의 경우 내포된 CP 안의 John에 나타난 강세는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바깥 DP로 투사가 불가능한 구문이다.

또한, 만약 (44)에서 발생하는 초점 투사의 경우와 같이 (42B)에서도 초점이 투사되어 전체 명사구로 확대 투사된 초점구만을 초점으로 남기고 내부의 초점인 John이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면 중요한 의미 해석을 간과하게 된다. 앞의 Krifka의 예문에서도 보았듯이 섬구조 안에서 어떤 표현에 실제로 강세가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진리 조건도 달라질 수 있는 의미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따라서 (43B)의 섬구조의 내부에 있는 초점 표현은 전체구가 초점 해석을 받더라도 여전히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를 포착하면서 동시에 전체 명사구에 투사된 초점의 의미도 포착하기 위해서 Krifka는 AS와 SM의 혼합 접근방식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초점을 정체확인 서술로서의 초점 분석 방법으로 동시에 포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⁸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것으로 해석된다.

- (i) A: Dr. Svenson rejected [DP the proposal Bill submitted]
B: No, Dr. Svenson rejected [DP the proposal [JOHN] $_F$ submitted]
H*

이러한 협초점 (narrow focus)의 경우는 상위 언어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견해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서도 같은 입장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겠다. (cf. Kadmon 2001)

⁸ 다음의 분석 내용은 졸고(2007)의 분석을 그대로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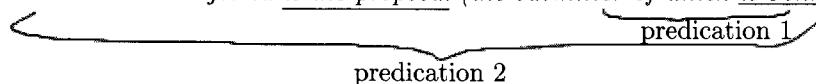
문장의 문맥과 의미를 잘 고려해 보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계획안을 의미하는 전체 DP에 초점이 투사되어야 하고, 동시에 계획안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는 John이 제출자라는 점이기 때문에 John도 초점의 기능을 한다. 즉, 이 문장은 초점이 이중으로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서 한국어로 해석해 보면 (45)와 같은 초점 구조를 갖게 된다. 제출자인 John과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부분인 DP전체, 이렇게 두 곳에 F-표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위에서 제시한 초점의 정체확인의 서술어로서의 의미적 기능을 상기해 보자. 정체확인 서술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A는 B이다’와 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초점의 술어적 의미는 (46)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5) Svenson은 $DP[CP[[John]_{F1} \text{이 제출한}] \text{제안을}]_{F2}$ 퇴짜 놓았다.

(46) [Svenson이 퇴짜 놓은 것은 / $CP[\text{제출자가 John인}]_{\text{predication1}}$ 제안이다.] $_{\text{predication2}}$

우리말 해석 (46)에 드러난 대로 ‘A는 / 가 B이다’와 같은 정체확인 서술이 두 번 나타난다.⁹ 한 번은 $[CP[John \text{이}]_{F1} \text{제출한}]$ 의 CP내부에서 ‘제출한 사람이 John이다’로 한 번 나타나는데 이때의 의미는 안쪽 상자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정체확인 서술은 전체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DP인 *the proposal that John submitted*, 즉, ‘John이 제출한 제안’이 초점이 되어, ‘Svenson이 퇴짜 놓은 것은 (John이 제출한) 제안이다’라는 의미로 바깥 상자에 의해 나타난다.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두 번의 의미적 주-술 관계가 발생을 한다.

(36) *What Svenson rejected is the proposal (the submitter of which is John).*



즉, CP 내부의 초점인 F1에 의해 predication 1의 의미적 술어가 발생하고, 전체 문장의 목적 명사구인 F2에 의해 predication 2의 의미적 술어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predication 2의 의미적 주어 역할을 하는 what Dr. Svenson rejected, 즉, ‘스벤슨 박사가 퇴짜 놓은 것’의 의미는 담화상의 이전 질문인 (42A)에서 이미 주어진 내용으로서 조응적 지시체라는 점이 확인된다. predication 1의 의미적 주어 역할을 하는 제출한 사람 (the submitter)에 해당하는 선행사는 현재 주어진 담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상 지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쉽게 Lewis적 개념에 의거한 전제 수용

⁹ 익명의 심사자가 제시한대로 주-술 구조를 한국어의 분열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제격 조사 ‘-는’과 주격 조사 ‘-가’를 혼용해서 썼다. 구체적으로 모문에서 발생하는 주-술 구조는 ‘-는 분열문’을 내포 문장에서 발생하는 주-술 구조는 ‘-가 분열문’을 사용하였다. 근본적으로는 한정표현의 의미를 포착하기에는 이정민 (1992)에서 제시된 대로 의사 한정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으나 내포문에서는 ‘-는’이 발생할 경우 한정표현으로서 해석되기 보다 대조 주제로 해석되게 되어 ‘-가 분열문’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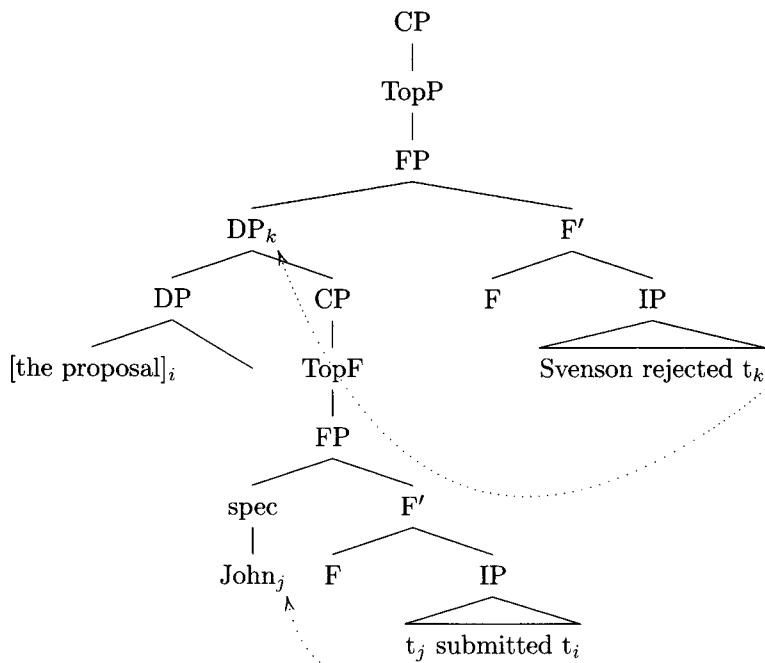
(presupposition accommodate) 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 즉, 계획안이라는 것은 제출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제출자에 의해 어떤 계획안인지의 구별이 가능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자’라는 존재는 쉽게 전제된 의미적 주어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초점 예문에서 발생하는 투사 현상은 통사적으로 Selkirk(1996)의 초점 투사 규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위의 예문에서 본대로 (44)는 강세를 받는 Mary에서 초점이 투사가 되면 더 이상 Mary는 초점이 아니고 전체 VP 만이 초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42B)의 경우는 이미 논의했듯이 강세가 있는 John 과 목적어 DP 가 둘 다 별도의 초점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42B)는 일반 초점 투사 현상과는 다른 현상이다. 즉, (42B)에서와 같이 좁은 단위에 실현된 음운적 강세가 해석상 더 넓은 구성소의 초점으로 확대 해석되는 현상은 Selkirk의 투사 규칙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통사적 투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문맥상의 필요로 확대되는 담화적 투사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42B)에서 John은 원래 CP 인 John submitted 밖으로 투사(syntactic project) 될 수 없으므로, 협초점(narrow focus)으로서 의미적 정체구현 서술(identificational predication)의 기능을 CP 내부에서 수행하고, 전체 DP 는 담화상에서 필요한 초점 부분으로 또 한번 문장 전체에 대한 정체구현 서술이라는 초점의 의미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섬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초점인 John의 초점은 CP 밖으로 투사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초점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외부적으로도 명사구 전체가 의미적으로 초점구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이중적 초점 구조가 발생한다.

(42) B: Dr. Svenson rejected [_{DP} the proposal [JOHN]_F submitted]_{FP}

따라서 이때의 초점구인 전체 DP 는 구조화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듯이 이동이 되더라도 이동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초점구 내부에 초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적으로 초점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문장의 통사구조를 알아 보자. 일반적인 초점구를 포함한 문장의 통사구조를 위해서 Haegemann & Gueron (1999)의 구조를 채택한 줄고(2007)의 방법을 다시 소개한다. 반복하자면, (42B)의 정보 구조는 John이라는 초점과 the proposal John submitted라는 복합명사구 초점이 발생하는 이중적 초점 구조이다. 따라서 초점구 전체는 [spec, FP] 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초점구 안에 내포되어있는 CP 내부의 초점인 John 은 내부의 [spec, FP] 로 이동이 이루어져서 다음과 같은 LF 구조를 갖게 된다.

(47)



위의 구조에서 작은 원 부분이 $[John]_F$ submitted t_i 에 해당하는 서술어 1이고, 큰 원 부분이 전체 문장의 초점구인 Svenson rejected $[\text{the proposal...}]_{FP}$ 에 해당하는 서술어 2 부분이다. 전체 초점구 the proposal that JOHN submitted라는 DP는 전체 문장의 초점 위치인 spec,FP로 이동하고, 그 DP 내부의 CP 안에서는 초점인 John이 내부의 spec,FP로 이동하는 구조이다. 즉, 두 번의 초점이 술어로서 발생하는 의미가 구조적으로 표시된다. 이 두 개의 의미적 주술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담화 맥락적 전제 조건은 누군가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전제와 Svenson이 어떤 제안서를 퇴짜 놓았다는 전제된 내용이 이미 문맥에서 주어졌을 때로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 전제조건은 수용 (accommodation) 과 선행하는 의문문에 의해 각각 만족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초점 구조의 의미가 어떻게 합성적으로 (compositionally) 도출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의미 도출에 앞서서, 초점의 정체확인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초점 자질을 위한 의미 해석 규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48) 초점 자질 해석 규칙:

- (i) F 혹은 FP로 표시되는 표현은 초점자질을 갖게 되어 자질 확인 (feature checking)을 위해 초점이동을 하고 남은 흔적에 의해 도입된 변항은 4.1 절에서 논의한대로 한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 (ii) 이동해 나간 초점구는 확인 서술 (identificational predication)의 기능을 위해 동일성의 함수 (identity function)로서 타입변이 (type shift) 된다.

(cf. Partee 1987)

먼저 큰 원안에서 발생하는 외부 초점 구조를 위해서 규칙 (48i)에 따라서 초점구가 이동한 trace를 포함한 IP 부분은 (49i)과 같이 한정적 표현의 논항으로 해석되고 이동한 초점구인 DP는 (48ii)에 의해 (49ii)와 같이 동일 함수로 해석된다.

(49) 외부 초점: Predication 2 (구조 (47)의 큰 원에서 발생).

(i) IP (전제된 변항인 논항): $[[\text{What Svenson rejected}]] = \iota x [\text{reject}(\text{Svenson}, x)]$ ¹⁰

(ii) DP (동일 함수인 술어):

$$\begin{aligned} & [[\text{is the proposal} (\text{the submitter of which is John})]] \\ & = \lambda z (z = \iota v [\text{proposal}(v) \wedge \iota x [\text{submit}(x, v) = j]]) \end{aligned}$$

(iii) FP(논항 (i)에 함수 (ii)를 적용):

$$\begin{aligned} & [[\text{What Svenson rejected is the proposal (whose submitter is John)}]] \\ & = \lambda z (z = \iota v [\text{proposal}(v) \wedge \iota x [\text{submit}(x, v) = j]])(\iota x [\text{reject}(\text{Svenson}, x)]) \\ & = (\iota x [\text{reject}(\text{Svenson}, x)]) = \iota v [\text{proposal}(v) \wedge \iota x [[\text{submit}(x, v)] = j]] \quad (\lambda\text{-변환}) \end{aligned}$$

섬구조인 관계절 내부에서 John에 발생하는 초점 자질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합성적으로 도출된다.

(50) 내부 초점: Predication 1 (구조 (47)의 작은 원 안에서 발생).

(i) IP(전제된 변항인 논항): $[[\text{the submitter}]] = \iota x [[\text{submit}(x, y)]]$

(ii) DP(동일 함수인 술어): $[[\text{is John}]] = \lambda z (z = j)$

(iii) 논항 i에 함수 ii를 적용: $[[\text{the submitter is John}]]$

$$\begin{aligned} & = \lambda z (z = j) \iota x [[\text{submit}(x, y)]] \\ & = \iota x [[\text{submit}(x, y)] = j] \quad (\lambda\text{-변환}) \end{aligned}$$

이 분석 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초점이 논항이 아니라 초점은 술어이기 때문에 함수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구조화 의미론에 의하면 배경부분이 술어로서 람다 표현이 되고 초점이 논항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서 암시되었듯이 구조화 의미론과는 반대로 초점이 논항이 아닌 술어로서 함수의 기능을 해야 한다. 동사구나 형용사구가 술어로서 함수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분석에서 초점은 본래 어떤 통사구였든지 동일성 함수로서 정체구현 서술어의 의미적 역할을 하고 배경에서 나온 논항에 함수 적용되는 연산작용을 하게 된다.

¹⁰ 이때의 논항은 5.1 절에서 논의된 대로 Rullman(1995)를 따라 최대항을 내어주는 최대항 연산자인 *max* 연산자를 사용해야 하나의 지시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호의 편의상 한정표현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i* 운용소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이상으로 정체확인 서술어로서의 초점 분석 방식으로 섬구조 안에서 발생한 초점이 섬 내부와 전체 명사구에서 해석되는 의미적 해석 과정과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Krifka에서 논의된 예문의 해석에 이 방식을 적용해 보자.

- (34') a.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_F to Sue]_{FP}*
- b. John *only liked [the man that introduced Bill to Sue_F]_{FP}*

only를 뺀 문장의 의미 해석을 정체확인 서술로서의 초점의 분석을 적용해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페러프레이즈된다.

- (51) (a) *The one who John liked is the man x such that the one who x introduced to Sue is Bill.*
- (b) *The one who John liked is the man x such that the one who x introduced Bill to is Sue.*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34)에서 제시된 문맥을 가정해 보자. Bill을 Sue에게 소개한 사람은 Greg이고, Ben을 Sue에게 소개한 행위자는 George라고 가정하자. 또한, Bill을 Sigrid에게 소개한 행위자가 Glen이라고 하자. 정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소개를 행한 행위자에 대해, 소개당한 사람과 소개 받은 사람으로 도식화해 보았다.

- (52) introduce:
- Greg: Bill → Sue
- George: Ben → Sue
- Glen: Bill → Sigrid

그리고, John이 Greg과 Glen을 좋아하고, George는 안 좋아는 상황으로, (51)과 같이 정리된다.

- (53) like:
- John → Greg, Glen
- John ↗ George.

(51a)가 의미하는 바는 “John이 좋아하는 사람은 Sue에게 소개를 당한 피행위자가 Bill인 경우의 소개를 행한 행위자이다.”라는 뜻으로서 그 사람이 Greg이다. 반면, Sue에게 소개를 당한 피행위자가 Ben인 경우의 소개를 행한 행위자는 George이다. 이제 only를 의미상 술어 수식 부사로 처리하여 (48)에 only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된다.

- (51') (a) *The one who John liked is only the man x such that the patient of x's introduction to Sue is Bill.*
- (b) *The one who John liked is only the man x such that the recipient of x's introduction of Bill is Sue.*

(51'a) 가 의미하는 바는 Sue에게 소개를 당한 피행위자가 Bill인 경우의 소개자인 Greg만 좋아하고, Sue에게 소개를 당한 피행위자가 Ben인 경우의 소개자인 George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가정한 문맥인 like의 관계 (53)에 의하면 John이 Greg는 좋아하지만 George는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문장은 참이 된다.

반면, (51b)는 “John이 좋아하는 사람은 Bill을 소개받은 사람이 Sue인 경우의 소개를 행한 소개자이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John이 좋아하는 사람은 Greg이라는 뜻이다. only가 첨가된 (51'b)에 의하면 결국 Greg만 좋아한다는 뜻이다. 즉, Bill을 소개받은 사람이 Sue가 아니라 Sigrid인 경우의 소개자는 안 좋아한다는 뜻으로 바로 Glen을 안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어진 문맥 (53)에 의하면 John은 Glen도 좋아한다. 따라서 (b) 문장은 거짓이 되고 이는 올바른 해석이다. 각 문장의 의미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 (a) $\forall z [\text{like}(john, z)] = \text{only } \forall x[\text{man}(x) \wedge \forall y[\text{introd}(x, y, sue) = \text{bill}]]$

(b) $\forall z [\text{like}(john, z)] = \text{only } \forall x[\text{man}(x) \wedge \forall y[\text{introd}(x, bill, y) = \text{sue}]]$

이와 같은 방법으로 (36-37)에서 제시된 Krifka의 구조화 의미 이론과 대체 의미론의 혼합 방법으로 설명한 초점 문장의 진리 조건적 해석을, 정체확인 서술의 단일한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섬구조 안에 있는 협초점 (narrow focus)과 그것이 확대된 광초점 (wide focus)인 초점구를 모두 정체확인 서술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단일한 방법으로 필요한 해석적 차이를 포착할 수 있고, 또한 (49-50)에서 제시된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발생하는 초점의 통사적 LF 이동 구조도 통일되게 얻을 수 있다.

이번에는 혼합이론의 문제점이었던 예문을 다시 분석해 보자.

(38) A: *Does Anne like every man who introduce a gentleman to his partner at table?*

B: *No, Anne only likes the man who introduced Bill_F to Sue_F.*

이때의 두 개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변항과 연결된 초점들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54) The one Anne likes is the man x such that the pair <y, y's partner> that x introduced is **only** <Bill, Sue>.

(55) $\forall z [\text{like}(anne, z)] = \text{only } \forall x[\text{man}(x) \wedge \forall y[\text{introd}(x, y, y's \text{ partner}) = \text{bill}]]$

이와 같이 혼합방법론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예문을 정체확인의 서술의 방법으로 이동 제약에 대한 위배도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초점에 대한 의미 이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 의미론적 방법과 구조화 의미론적 방법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Krifka의 혼합 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체확인 서술로서의 초점 분석 이론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점에 대한 의미론적 이론인 대체 의미론과 구조화 의미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체 의미론은 초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문장의 구조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초점에 대해 비선별적으로 대체집합을 생성하는 의미 해석을 산출하도록 하는 기제이다. 이러한 방법은 문장의 구조에 대한 통사적 조작이 필요 없이 초점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론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구조화 의미 이론은 초점(민감성) 운용소와 초점이 연결 해석되기 위해서 문장의 내부를 구조화 하여 통사적으로 이동을 가정하여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운용자와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선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경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서 지적된 대로 대체 의미론의 초점에 대한 비선별적 의미 해석은 많은 초점 문장들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체 의미론에서 반대하고 있는 초점의 LF 이동 가설을 뒷받침하는 예들이 있음도 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초점은 대체 의미론의 입장과는 달리 초점 운용소에 의해 선별되며, 구조화 의미 이론의 입장에서 제시하듯이 구조적으로 문장에 영향을 미치며 통사적 이동을 한다는 구조화 의미 이론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Krifka(2006)에서 지적한대로 구조화 의미론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예문들이 존재함을 보았고, 이에 대해 Krifka가 제안한 구조화 의미 이론과 대체 의미론을 혼합하여 접근하는 이론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 혼합 방식에서 이용되는 대체 의미론적 방식도 대체의미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초점이 문장 내부의 의미적 구조화를 일으킨다는 구조화 의미 이론의 기본 정신과 맥을 같이 하지만, 그 세부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정체확인 서술어로서의 초점에 대한 이론으로 문제가 되었던 예문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았다.

< 참고문헌 >

- Blok, Peter. 1993. *The interpretation of focus. An epistemic approach to pragmatics.* Ph.D. thesis, Rijksuniversiteit Groningen.
- Buering, Daniel. 1994. Topic. In Bosche and van der Sandt (eds.), *IBM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Logic and Linguistics 2*, pp. 271–80.

- Chomsky, N.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D.D. Steinand and A. Jakobovits (ed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183–16.
- Chomsky, N. 1976.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Linguistic Analysis* 2, 303–51.
- Cresswell, M. J. and A. von Stechow. 1982. De re belief generalized. *Linguistics and Philosophy* 5.4, 503–35.
- Drubig, Hans Bernhard. 1994. *Island constraints and the syntactic nature of focus and association with focus*. Tübingen.
- Frege, G. 1982. *Über Sinn und Bedeutung*. Blackwell Publishers, Oxford. English translation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f Gottlob Frege, ed. by P. Geach and M. Black.
- Haegeman, L and J. Gueron.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Blackwell.
- Hamblin, C.L. 1973. Questions in Montague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0, 41–53.
- Hausser, Roland. 1976. The logic of questions and answers. manuscript, Munchen.
- Herberger, Elena. 2000. *What Counts Focus and Quantification*.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Kadmon, N. 2001. *Formal Pragmatics*. Blackwell publishers, Malden.
- Kenessei, Istvan. 2006. Focus as Identification. In Molnar and Winkler (eds.), *The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Gruyter, pp. 137–168.
- Kiss, E. 2006. Focussing as Predication. In Molnar and Winkler (eds.), *The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Gruyter, pp. 169–193.
- Krifka, M. 1991.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Multiple Focus Construction. In *Proceedings of SALT 2*, pp. 127–158.
- Krifka, M. 1992.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multiple focus constructions. In Joachim Jacobs (ed.), *Informationsstruktur und Grammatik*.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pp. 17–53.
- Krifka, M. 2006. Association with Focus Phrases. In V. Molnar and S. Winkler (eds.), *The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 Gruyter, Berlin, NY, pp. 106–136.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a Structure and Sentence Form*.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ee, C. 1992. 비한정석 / 불특정성 vs. 화제 / 초점. 국어학 22.
- Lobner. 1990. *Wahr neben Falsch*. Max Niemeyer Verlag, Tubingen.
- Partee, Barbara. 1987. Noun phrase interpretation and type-shifting principles. In J. Groenendijk, D. de Jongh, and M. Stokhof (eds.), *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Foris, Dordrecht, pp. 115–43.
- Paul, H. 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Niemeyer.
- Peregrin, J. 1995. Topic and Focus in a Formal Framework. In B. Partee and P. Sgall (eds.), *Discourse and Meaning: Papers in Honor of Eva Hajicova*. John Benjamin.
- Roberts, Craige. 1996. Information Structure in Discourse: Towards an Integrated Formal Theory of Pragmatics.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Rooth, Mats. 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Rooth, Mats. 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Rooth, Mats. 1996. Focus.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Publishers, Oxford.
- Rullman, H. 1995. *Maximality in the Semantics of Wh-Constructions*.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479–93.
- Scha, R. 1983. *Logical Foundations for Question Answering*. Ph.D.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
- Selkirk, E. 1996.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and Phrasing. In Goldsmith (ed.),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Blackwell, Cambridge, Gikdsmith, MA, pp. 550–69.
- Steedman, M. 1994. Combinators and Gramma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teedman, M. 2000. *The syntactic Process*. MIT Press, Cambridge.
- Szabolcsi, A. 1981. The Semantics of Topic-Fpcis Articulation. In Jeroen Groenendijk, Theo Janssen, and Martin Stokhof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Mathematisch Centrum, pp. 513–40.
- Tichy, P. 1978. Questions, answers and logic.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5.
- von Stechow, Arnim. 1981. Topic, focus and local relevance. In W. Klein and W. Levelt (eds.), *Crossing the Boundaries in Linguistics*. Reidel.
- von Stechow, Arnim. 1990. Focusing and backgrounding operators. In Werner Abraham (ed.), *Discourse particles*. John Benjamins, Amsterdam, pp. 37–84.
- von Stechow, Arnim. 1991. Current issues in the theory of focus. In Arним von Stechow and Dieter Wunderlich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Walter de Gruyter, Berlin, pp. 804–835.
- Wee, H-K. 1999. *Definite focus*. Ph.D.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
- Wee, H-K. 2003. Function of Focus as Semantic Predicat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 453–474.
- Wee, H-K. 2007. 초점 현상 분석에 의한 통사구조, 정보 구조, 담화구조의 관련성 탐구. *생성 문법 연구* 17.2, 123–164.
- Zubizaretta. 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접수 일자: 2010년 5월 21일

게재 결정: 2010년 6월 14일